

뜨거운 유료방송 M&A... 관전 포인트는

# ‘8VSB’ 가입자, 계측서 황금알 거위로... 이통3사 ‘군침’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시청〉

8VSB, 가입자당 평균 매출 낮지만 VOD 등 추가수익 실현 가능 ‘이점’ CMB, 적극적으로 8VSB 전환 시도 인수합병 재편 시세 성장동력 기대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종합 유선방송(MSO)이 매물로 나오며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8VSB(B8-Vestigial Side Band)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유료방송 업계 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현대HCN 인수전의 본입찰 마감일이 내달 15일로 정해졌다. 현대HCN 인수전에 뛰어든 이동통신 3사는 내달 초 실사를 마무리하고,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HCN의 향후 방향에 가닥이 잡히면, 나머지 MSO의 M&A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한 합산규제도 전면 폐지하고, M&A 기업결합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해 규제도 완화됐다. 특히 그간 규제 불확실성으로 M&A 협상의 폭이 좁았던 KT 또한 현대HCN·딜라이브·CMB의

## 8VSB란?

8레벨 잔류측파대(8-level vestigial sideband). 지상파방송이 독점해 온 전송 방식이었는데 2014년 6월부터 케이블에도 적용된다. 기존 TV에서 ‘7-1’, ‘9-1’ 같은 번호로 나오는 지상파 HD들은 8VSB 방식으로 수신된 고화질(HD) 방송이다. 8VSB 방식으로 송출이 되면 케이블에서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인수자로 나선 이동통신 3사는 매물로 나온 MSO들의 가치 평가와 미래 사업 성장성 등을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다. 이 중 8VSB가 MSO와 결합 시 미래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을지 주목받고 있다.

8VSB는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디지털 전환에도 많은 이용자들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송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가 국민복지형 전송방식으로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8VSB는 요금이 3000원~4000원 정도로, 아날로그 방송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쓰여왔다. 아날로그를 이용하던 시청자들에게 고화질의 방송 경험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수월하게 했다.

〈딜라이브·CMB·HCN 가입자 등 현황〉

구분	딜라이브	CMB	HCN	
가입자 (2019년 12월(e), 천명)	방송상품	2,008	1,531	1,315
	8VSB	462(23.0%)	1,430(93.4%)	460(35.0%)
	디지털	1,546(77.0%)	101(6.6%)	855(65.0%)
	결합상품	374(18.6%)	163(10.6%)	244(18.6%)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공표자료 외 참조

그간 8VSB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자는 CMB다. CMB는 ‘8VSB 채널형 VOD 서비스’ 개발 추진 등 8VSB 전환에 일찌감치 나서 93.4%가 8VSB 가입자다. 현대HCN은 35%, 딜라이브는 23%의 비중이다.

일각에서는 8VSB 중심 가입자가 M&A 재편 시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낮지만 디지털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 등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가입자

로 확장이 용이해 VOD나 부가서비스 등 추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8VSB는 오히려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인터넷, OTT박스, 일반 셋톱박스 결합 등 추가상품을 다양하게 붙이기 편하고, 셋톱박스 교체를 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최근 티브로드와 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기존 케이블TV 이용자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거나 SK브로드밴드 IPTV 이용자가 SVSB를 추가로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결합상품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명의자가 같은 주소에서 Btv와 8VSB인 Btv 케이블다이렉트를 이용하는 경우 8VSB 이용요금 반값을 할인해준다. 인터넷과의 결합도 할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건은 8VSB 가입자의 구매력이다.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8VSB는 상품 결합 측면에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인수자는 단순히 가입자 확보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며 “8VSB를 어떻게 결합하고 혁신할지는 인수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항공업계, 인수나 무산이나 주말 M&A 빅딜 ‘분수령’

아시아나항공, 내일 협상시한 종료 산은·현산 평행선... 장기화 가능성 이스타항공, 29일 종결시한 앞두고 임금체불, 타이이스타젯 과제 산적

국내 항공업계가 이번 주말 인수합병(M&A) 작업의 성사 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무산 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말이 국내 항공업계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A를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오는 27일과 29일을 인수 종결 시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이 같은 인수합병 과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사실상 인수 무산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매각 절차가 수포가 돌아갈 경우, 향후 업계 재편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생긴 문제가 여전히 ‘시계 제로’인 상태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진행 중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계약 이전 대비 확대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두고 딜 조건의 재협상을 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지만, 약5개월 여 만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4조5000억원 증가했다는 게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이다. 이에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딜 클로징 일정을 연장하자는 것.

그러나 산업은행도 이 같은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며, 재협상이 아닌 인수 무산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7일 산은은 늘어난 부채에 대해 2조8000억원은 현금흐름과는 무관한 장부상 부채 증가와 영업 부진에 따른 차입금 증가(4000억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도 여전히 최종 딜 클로징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태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셋다운’에 돌입하며, 직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제주항공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급여만 약 250억원에 달하며,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채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수록 그 체불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 해당 금액을 나눠 부담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선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 관련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다만 인수 주체인 양측의 합의로 M&A를 종결하지 않고, 재협상을 위해 딜 클로징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의 인수 의지가 남아있다면, 최대 6개월의 인수 종결 시한 연장으로 딜 조건의 재협상 등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투자자를 대체하자!



리스크에 강한 회사가 대체투자에도 강합니다. 대신증권은 금융부동산 전문가로서 100세 시대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투자와 더불어 대체상품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관리 대신증권과 함께 해보세요!

지키고 불리는 자산관리 대신증권이 함께 합니다.



제20-00460호

고객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해외투자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